

차지연 “눈부시고 찬란한 제 청춘...아름다운 이별 중”

뮤지컬 ‘서편제’ 2010년 초연부터 다섯 시즌 출연
마지막 시즌으로 막 내리는 ‘서편제’...주인공 ‘송화’

“눈부시고 아름답고 찬란한 제 청춘이었어요.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송화’를 잘 보내고 싶어요.”

배우 차지연에게 뮤지컬 ‘서편제’는 청춘 그 자체다. 2010년 초연 당시 29살이었던 그는 12년간 다섯 시즌을 함께해오며 어느새 41살이 됐다. 이번이 마지막 시즌으로 막을 내리는 ‘서편제’와 그는 아름다운 이별 중이다.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함께 했다. 이렇게 오래 한 작품도, 때 시즌 참여했던 작품도 없다”며 “이 작품에 쏟았던 진심을 관객들이 느껴줬기에 계속해서 송화로 찾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스로 송화와 같은 역할을 하던 차에, ‘서편제’ 역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너(작품)와 내가 같은 시기에 몇 있게 헤어질 수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도 송화를 사랑하지만, 보내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배우의 덕목 중 하나죠. 허전함이나 섭섭함보다 여기까지가 딱 아름다운 만남이죠.”

그럼에도 아쉬움은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나 보다. 첫 공연을 마치고 울음을 꺾고 활짝 웃었지만, 이후 커튼콜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온다고 했다. “상상치 못한 큰 환호와 박수에 너무 벅차죠. 뺨뺨하게 채워진 자리를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진심을 알아주는 내 편이 많이 생긴 기분이죠.”

차지연은 소리의 길을 따라 운명에 초연히 맞서 나가는 주인공 ‘송화’를 연기해왔다. 소리와 한에 접착하는 아버지 유봉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는 아픔도 겪는다.

시즌을 거치며 그의 ‘송화’도 점점 성장했다. 12년 전, 두산아트센터에서 약 25명의 관

객 앞에 섰던 초연 첫 무대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소수의 관객이었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소리꾼이 아닌 만큼 두렵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였고 다 쏟아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지만, 양이 줄고 질감이 달라졌죠. 투박하고 날 것의, 29살 저의 ‘송화’가 문득 문득 궁금한데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서 아쉬워요.”

그는 “지금도 저도 아내가 됐고, 엄마가 됐고 경험이 많아졌기에 좀 더 단단해진 ‘송화’가 됐다”며 “저 스스로도 가장 묵직하고 담백한 ‘송화’가 되지 않았나 싶다. 초연 때보다도 더 맑고 티 없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송화’가 판소리 ‘심청가’ 대목을 절절하게 부르는 마지막 장면은 작품의 백미다. “소리로 경험이 쌓였나 보다”고 웃으며 “다섯 시즌을 하니 요령이 생겨서 목이 상하지 않는다. 소리할 땀 신기하게 온·오프처럼 목소리가 달라진다. 저의 ‘심청가’는 테크닉보단 송화로서, 심봉사로서, 심청이로서 각 역할의 정서와 감정을 전하는 힘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가장 긴장하는 장면은 뮤지컬 초반, 송화의 첫 남편인 ‘살다보면’이라고 했다. “처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일 어렵고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 긴장감이 반가워요. 무대 뒤에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긴장한다는 건 스스로 나태해지거나 과신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국악인 집안인 외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북을 치고 소리를 듣는 데 익숙했다. 판소리 고별 명인 고(故) 박용익이 차지연의 외할아버지다. “솔직히 작품과는 상관없다.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항상 북이 옆에 있었고 명인들의 소리를 들었기에 서편제의 분위기가 낯설지 않다. 사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국악이 큰 애용이었기에 어찌 보면 제 안에 한을 쌓아줬다”고 말했다.

2006년 뮤지컬 ‘라이언 킹’으로 데뷔해 16년차인 그는 올해 무대를 그만뒀다 하나 고민할 정도로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했다.

“배우의 삶과 생각이 무대에 모두 투영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무서운 공간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죠. 그만큼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맨땅에 헤딩하며 많은 서러움과 수모를 겪었어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러 상황과 사건에 지치기도 했죠. 긴 세월, 이를 바로잡거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왜 서로 험담하며 이곳을 시궁창으로 만드는지 속상했죠. 건강한 무대를 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힘들어할 때, 늘 중심을 잡아주는 건 남편인 배우 윤은채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겐 너무 큰 존재”라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애정을 보였다.

“남편은 항상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차분하고 따뜻하고 넓은 사랑으로 제가 잘 설 수 있도록 제 손을 잡아주죠. 배우로서도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응원해요. 선한 사람이라 무대에서도 그 온기가 느껴지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꼭 결혼할 거예요.”

차지연도 ‘송화’처럼 묵묵히 자신만의 연기의 길을 걸어왔다. “누군가는 제게 ‘너는 왜 안 되는 작은 작품만 골라서 하나’, ‘스타가 못 되는 명정한 길을 가냐’고 했죠. 속상했지만, 제가 되고 싶은 건 스타가 아니라 오랫동안 연기할 수 있는 배우예요. 바로 그것 있는 배우로 나아가고 싶죠. 끊임없이 제 목소리를 듣고 주변의 비판을 들으며 성장하는 그 과정에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는 관객들에게 ‘서편제’가 목격한 작품



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화려함을 없었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도 묵직하게 마음속에 남았으면 해요. 우리끼리 무언의

교류를 할 수 있죠. 인물 한 명 한 명의 삶이 다양한 색채로 펼쳐지는 그 풍성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디즈니+ 손잡은 유재석, 무한도전은 계속...‘더존’



MC 유재석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와 손잡고 서바이벌 예능물에 도전했다.

“더존: 버티야 산다”는 첫 디즈니+ 출연작일 뿐만 아니라, 조효진 PD와 함께 기획해 의미가 남다르다.

OTT 진출작인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시즌1~3(2018~2021)에서 주리 탐정단으로 변신했다면, 더존에선 극한의 재난 상황에 맞서

첫 디즈니플러스 출연작...조효진 PD와 함께 기획

는 모습을 보여 줄 예정이다. 유재석의 ‘무한도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재석은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디즈니+ 더존: 버티야 산다 제작발표회에서 “제작진이 만든 상황에 들어가 4시간 동안 버티면 된다”며 “단순하지만 강도가 놀랄 정도였다. (4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없다. ‘그 정도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탈출하는 콘셉트 프로그램을 많이 해 다른 건 없을까?” 고민했다. “탈출이 아닌 상황을 버티보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했고, 조 PD가 구체화했다”며 “이야기 중에 나온 키워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구현됐다. 나와 대화해 나온 키워드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출연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재석과 배우 이광수, 그룹 ‘소녀시대’ 유리가 미래 재난 시뮬레이션 존 8개에서 펼쳐지는 생존기다. 유재석은 조 PD와 SBS TV ‘X맨 일요일이 좋다’(2006~2007)부터 ‘패밀리가 떴다’ 시즌1(2008~2010), ‘런닝맨’(2010~), ‘범인은 바로 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조 PD는 “오랫동안 유재석과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해왔다”며 “이번 촬영에서 카메라를 보고 욕하는데, 나에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 귀띔했다. 유재석은 “평소 욕을 안

하진 않는다. 지금도 그렇고 간간히 욕을 하는데 편집됐을 뿐”이라며 “여기서는 조 PD가 방송에 났을 뿐이다. 난 변함없다”고 해 웃음을 줬다.

이광수 역시 런닝맨과 범인은 바로 너에 이어 유재석과 호흡을 맞췄다. “극한 상황을 버티야 한다”는 콘셉트 자체가 신선했다”며 “조 PD가 ‘무조건 4시간 안에 녹화가 끝난다’고 하더라. 그 점이 무척 매력적이었다. 근데 내가 생각한 4시간과 좀 다르긴 했다”고 웃었다.

유리는 흥일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재석과 이광수 케미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 끌렸다고 전했다. “방 탈출 게임을 좋아하는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버라이어티해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매력적이었다”며 “유재석과 이광수의 케미를 직관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난 새로운 인물로서 신선한 케미를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 PD는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코로나19가 심각했다. 그 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버티라’라는 문구를 봤다”며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도 버티기의 연속이어서 예능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싶었다”고 털어놨다.

8일 오후 4시 공개.

한가인, 연정훈과 예능 맞대결...‘싱포골드’



배우 한가인이 남편 연정훈과 예능 맞대결을 예고한 가운데 그의 반응을 공개했다.

6일 SBS TV 오디션 프로그램 ‘싱포골드’는 ‘매니저 실장’ 한가인의 키워드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한가인은 ‘싱포골드’에서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참가자와)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해줄 수 있고 그건 또 제가 잘 할 수 있겠다 싶었다”며 ‘공감요정’으로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이어진

‘EST’라는 키워드에는 “제 MBTI다. 철저한 계획형인데 매니저 역할과 잘 맞는 것 같다”며 또 한 번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한가인은 남편 연정훈과 예능 맞대결을 펼치게 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싱포골드’가 일요일 오후 6시30분에 편성되면서 연정훈이 출연 중인 KBS 2TV 예능물 ‘1박 2일 시즌4’와 동시간대 맞붙게 된 것. 이에 한가인은 “남편에게 문자로 소식을 전했더니 ‘헐’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라”며 연정훈의 반응을 전했다.

이어 “(1박 2일은) 워낙에 정수 프로그램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프로그램”이라며 “저희도 그에 못지 않게, 다른 코드로 좋아해주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가인은 “꼭 이기고 싶다”는 말도 내놓지 않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끝으로 한가인은 ‘싱포골드’라는 키워드에 대해 “이 무대를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반짝반짝 빛난다. 되게 감동적”이라며 첫 방송 시청을 독려했다.

25일 오후 6시30분 첫 방송.

블랙핑크, 정규 2집 포스터... “치명적인 블랙”

오는 16일 정규 2집 ‘본 핑크’ 발매

그룹 블랙핑크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의 베일이 드러나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본 핑크’의 멤버별 포스터를 공개했다.

사진 속 멤버들은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과는 또다른 느낌의 분위기를 뽐낸다. 지수는 블랙 헤어와 스모키한 화장으로 남다른 카리스마를 과시했고, 제니는 오렌지 빛으로 물들인 머리에 검정색 후드 착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제는 백금발의 머리와 화려한 네일로 우아한 매력을, 금발로 변신한 리사는 비즈가 돋보이는 머리 장식으로 화려한



비주얼을 선보였다. 앞서 공개된 타이틀 티저 포스터에 이어 이번에도 은빛 컬러가 사용됐다. 블랙핑크는 오는 16일 정규 2집 ‘본 핑크’를 발매한다. 지난 2020년 10월 2일 발매한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이청아, 변호사로 변신...‘천원짜리 변호사’

오는 23일 첫 방송될 예정

배우 이청아가 SBS 새 금토극 ‘천원짜리 변호사’에 출연한다.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최창환, 연출 김재현·신중훈)은 수입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 ‘갓생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이 빼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이다.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청아가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대형로펌 백의 에이스 변호사 이주영 역을 맡았다”고 6일 밝혔다. 극 중 약자를 위하고 법 아래 나쁜놈은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한다고 여기는 정의감으로 가득찬 캐릭터를 보여줄 예정이다.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오는 9월 23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뉴스

